

지역 소식통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지급

김제시가 8만4,000여명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1회 방문으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세대주가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2020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400여명에도 확대 지급한다.

김제시는 신청 5부제를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일요일에도 지급하는 등 읍·면·동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와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코로나19 예방 경제활성화에 총력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실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 시설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김제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개인·집단 방역 수칙을 널리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경제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의 일상 경제활동과 감염예방이 조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4차 산업혁명 혜택 누린다

봉뚝읍 주민, AI 원격상담체계, 말벗 서비스, 유해가스 차단 등 스마트 서비스 제공 예정

완주군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삶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0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전북 최초 선정돼 봉뚝읍 주민들에게 5개 분야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통합·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과거부가 지능정보기술(ICT)을 접목해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주군은 올해 12월까지 준비 1억8천만 원을 포함한 국비 18억5천만 원과 민간부담금 6억2천만 원 등 총사업비 26억5천만 원을 투자해 봉뚝읍 일원에 검증된 첨단 AI, 클라우드, IoT 기술을 적용한 꿈의 주거지를 조성하게 된다.

완주군은 '다 함께 열어나가는 스마트 으뜸 빌리지' 서비스를 구축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의 어르신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과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군은 봉뚝읍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이는 AI스피커 135개를 보급해 AI 원격상담체계와 스마트 마을방송, 말벗 서비스, 게임, 날씨 안내, 라디오, 으뜸택시 호출 등을 구현하는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높은 버스정류장 4곳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그린부스 서비스'는 자의선과 미세먼지,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글라스월과 에어커튼, 무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냉·난방기, 비상벨과 스마트폰 충전기능이 포함된 온열안심벤치, 키오스크(무인 종합정보안내 시스템)까지 복합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태양전지판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수 있고, 지능형 영상분석과 회전형 카메라, LED 램프 점등, LED 전광판 안내문구, 안내방송이 가능한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를 25곳(이동식 15, 고정식 10) 구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 인공지능으로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신호기와 바다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 실버존 안심서비스'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이 많은 4곳의 횡단보도에 설치된다. 봉뚝읍 산업단지에는 대기 모니터링 센서와 악취 모니터링 복합기능센서 9개를 설치해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LED 전광판 2곳에 모니터링 정보를 표시하는 'IoT 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측정 및 초동대응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년실직자&청년사업장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 코로나19 극복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

5인미만 청년사업장 인건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

김제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청년사업장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청년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제시는 청년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생계지원금 지원사업' 50명과 청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15개소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실직자 생계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종사하다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시점(20. 1. 20.)부터 공고일 현재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관내 청년(만 18~39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김제시당상품권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4월 30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청년사업장(만 18~39세)에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시 월 최대 200만원씩 인건비의

80%를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기준은 '청년실직자 생계지원 지원사업'의 경우, 자격요건 및 실직기간, 근로기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후 선발 예정이며,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액 급감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장은 6월 30일 이내 시 간제 인력을 신규채용하면 된다.

신청은 '청년실직자 생계지원금 지원사업'은 5월 25일~6월 14일까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5월 25일~6월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b2030.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기타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허정 부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4차 보고회를 갖고, 1개월 남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실과 소장과 담당별 추진 중인 업무 중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제시는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을 총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의 60%인 3,036억 원으로 설정하고, 매일 신속집행 보고회와 부서장주재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한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의 적극활용, 부서별 1억 원 이상 부진사업



관리 등을 통해 6월 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가 협업,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이 영세 상인들의 복돋우는 '착한 소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

완주군청 건설안전국 직원들,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 동참

완주군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공무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이 영세 상인들을 복돋우는 '착한 소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청 3개국(局) 직원들이 지역 내 3개의 전통시장을 돌아가며 3번 점심식사로 하고 장도 보는, 이른바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청 건설안전국 직원들은 전날 삼례 5일장을 찾아 주변의 식당에서 삼삼오오 식사를 한 후 수첩에 적어온 생필품을 구매해 상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번이 3번째 참여인 건설안전국은 앞서 봉동 생강골시장과 고산 미소시장 등 2곳을 찾아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위한 착한 소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건설안전국 직원들은 전통시장

이 없는 읍면 소재지까지 구석구석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골목경제도 살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완주군이 나서 전통시장을 찾자 전북경제살리기 완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준), 봉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운), 봉동생강골시장상인회(회장 손재성) 등도 소비에 동참하는 등 전 군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한우협동조합은 "완주군이 상인들을 위해 시장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를 환원하고 싶다"며 최대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장은 "시장에서 만난 소비자, 상인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줘 감사했다"며 "우리의 소비가 상인들을 웃게 하는 '착한 소비'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고, 착한 나눔이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열대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주력

완주군이 비래 검역병해충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지난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제주도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이 최초로 발견된 후 전북 김제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완주군은 2개팀, 6명의 활동 요원을 편성하고 8월말까지 트랩을 활용한 중점 예찰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열대지방이 원산지이며,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검역관리급 병해충이다.

특히 옥수수, 수수, 벼 등의 일과 중기에 피해를 주고, 알부터 성충까지 44일의 발육기간을 가지고 200~300개

의 알을 산란하며 산란전 기간에는 최대 100km까지 이동이 가능할 만큼 번식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일 때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등숙된 약제로 신속히 방제를 하더라도 애벌레 발육 단계에 따라 약효가 다를 수 있으니 조기 예찰을 통해 애벌레를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 "열대거세미나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재배농가는 의심개체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063-290-3302)로 즉각 신고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